

美 50개 주 노숙자 ‘예수 제자’로 세운다

아버지밥상교회 무디 고 목사 “흠리스, 우리 도움이 가장 필요한 영혼들”

아버지밥상교회 무디 고牧사는 요즘 노숙생활을 마치고 제2의 삶을 시작하는 형제들로 어느 때보다 사역이 즐겁다. 힘든 노숙사역이지만 삶이 변화된 청년들과 함께 LA를 넘어 미주 50개 주를 변화시킬 꿈을 꾸고 있다.

30여 명이 함께 생활하며 공동으로 사역하는 아버지 밥상교회는 흠리스 헬터가 아니라 제자 훈련 센터에 가깝다. ‘먹이고 입히는 노숙 사역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무디 고 목사의 간절한 소망도 점차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중독으로 방황하던 존 오 형제를 비롯해 평생 간질을 앓고 살아온 스피트 오 형제 등 아버지 밥상교회에는 고통의 세월을 지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들로 항상 간증이 넘친다. ‘삶을 포기하려다 아버지 밥상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김태현 형제는 아버지밥상교회에서 인생의 소중함과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다. 그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닫게 됐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마약과 알콜 중독으로 길거리를 전전하던 이들은 아버지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새로운 삶을 찾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피해 빵을 찾아 헤매던 그들은 이제 노숙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아버지 밥상교회의 든든한 동역자가 됐다.

아버지 밥상교회 형제들은 겨울철 누구보다 추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엘에이의 노숙자들을 위해 이른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한다.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2시부터 크리스피크림 도넛 매장에서 도넛 수천 개를 픽업하고, 뜨거운 치킨 수프를 끓여 200여 명의 엘에이 다운타운 노숙자들에게 아침을 대접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사명이다. 강도 만난 사람과 같았던 그들에게 아버지 밥상에서 받았던 사랑을 따뜻한 스프와 커피에 담아 전한다.

아버지 밥상교회가 품성하게 대접하는 아침식은 엘에이 다운타운의 노숙자들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다. 하루 종일 길거리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허덕인 노숙자들에게는 따뜻한 아침 식사가 보약과도 같다.

무디 고 목사는 흠리스 사역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노숙자들을 향한 인식 전환을 꼽



LA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밥상교회 전도팀

는다. 흠리스를 보면 무서워하고 거리감을 두게 되는데, 흠리스는 무서운 존재나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상태에 있고 우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영혼들이라는 것이다.

무디 고 목사는 “LA에만 흠리스가 7만 명이 넘는다고 추산되는데, 노숙자 문제는 사회나 정부, 교회와 선교회에서 감당할 수 없다”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의

가장 작은 자를 도울 때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무디 고 목사는 “흠리스 사역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를 도와야 한다”며 “크리스천 가정에서 노숙자 한 사람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김동욱 기자
[2면에 이어서 계속]



지난 2013년 5월에 열린 미국 연합감리교(UMC) 총회에서 기도회를 열고 있는 목회자들. ©UMC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지역기구는 동성애에 대한 분열로 교단에서 탈퇴하기 위해 두 번째 투표를 실시한 아칸소 교회의 담임목사를 정직시켰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UMC

美 UMC, 교단 탈퇴 2차 투표한 목사 정직시켜

아칸소연회는 최근 존스보로 제일연합감리교회의 존 마일스 담임목사를 정직시켰다.

이 교회는 지난달 첫번째 교단 탈퇴 투표를 했지만 연회로부터 승인을 거부당했다. 이후 두번째 투표를 진행한 후 담임 목사가 정직된 것이다.

정직은 5개 교구 감독이 마일스 목사에게 제기한 공식 항의를 따랐다고 CP는 전했다.

UMC 계리 물러 감독은 최근 성명에서 “두 번째 탈퇴 투표는 교단의 장정을 위반했으며 아칸소 주법에 따라 불법”이라고 말했다.

물러 감독은 “마일스 목사는 승인되지 않은 회의를 열지 말라고 지시 받았다”고 덧붙였다.

연회는 ‘긴급 상황’을 선언하고 징계 절차를 발동했다. 이 조치는 “UMC와 존스보로에 소재한 교회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자 하는 교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칸소 연회에 속한 제일연합감리교회의 모든 재산에 즉시 소유권을 부여한다”라고 밝혔다.

물러 감독은 “우리가 현재 상황에 처하게 돼 매우 슬프다”라며 “이긴 자는 없다. 모두가 잃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잃었다. 평화의 마음이 우세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

만 아기 예수의 탄생에서 찾을 수 있는 희망을 붙든다”라고 했다.

교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유된 투표 집계 따르면, 629명 이상이 UMC에 남아 있지 않기로 결정했고 9명은 교단에 남아 있기를 원했다.

존스보로 제일연합감리교회는 또한 관리 위원회를 대체할 ‘관리자’ 팀을 임명하기 위해 교회 조례를 변경하는 데 압도적으로 투표했다.

정직 처분에도 불구하고 마일스 목사는 이 처분에 대한 응답으로 약속대로 주일에 교회에서 설교했다.

이미경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미국 ↔ 한국 ₩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 부동산법 ■ 배크럽시 ■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Happy New Year

생명을 위한 ‘빵 나눔’ 운동

연말연시 나눔 연말연시 작은 나눔으로 이웃에게 소망을 줍시다!

전쟁 중에 혹독한 겨울을 맞은
우크라이나 형제들을 도와주세요!

우크라이나 키르치(Khimich) 목사님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소식이 매일 날아옵니다.

- ▶ 전쟁으로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가정
- ▶ 포탄으로 집이 전소된 가정
- ▶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가정
- ▶ 전쟁중에 발발한 화재로 집을 잃은 군중 목사님 가정
- ▶ 폐허가 된 전쟁 미망인의 주택

UN과 함께하는 월드쉐어USA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절대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하는 국제 구호 NGO단체입니다.

Miracle! You can make it
WorldShare | 월드쉐어USA

후원문의 (323)578-7933 강태광 목사
3123 W. 8th St. #206, Los Angeles, CA 90005

“우크라이나 주민들과 ‘생명의 빵’ 나눠요”

교회와 단체, 개인 참여 가능 우크라이나 물, 전기 부족 심각 생명의 빵 모금 목표액 5만 달러

장기화 된 전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위해 ‘생명의 빵 나눔 운동’을 전개하는 월드쉐어USA 대표 강태광 목사를 만나 ‘생명의 빵 나눔’ 캠페인에 대해 들어봤다.

생명의 빵 나눔(Sharing Bread for Soul, 이하 SBS)은 빵(Bread)과 복음(Bible)을 동시에 전하는 운동으로 오랜 전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위해 연말연시 교회와 단체, 개인이 참여할 수 있다.

추운 겨울이 찾아 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피난을 가지 못하고 남아 있는 전쟁 난민들은 기간산업 시설의 파괴로 물과 전기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월드쉐어USA는 발전소와 변전소 공습으로 전기 사용이 제한된 우크라이나에 따듯



남가주 지역 교회와 성도들에게 ‘생명의 빵’ 나눔 운동 동참을 당부하는 월드쉐어USA 대표 강태광 목사 ©기독교일보

한 물과 난방이 가능하도록 태양광 패널을 지원했으며, 추운 겨울 피난민들의 겨울나기에 필수인 담요를 공급하고 있다. 특별히 전장의 군인들을 돌보는 군종 목사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쟁 미망인들에게 생활 필수품

을 지원하고 있다. 월드쉐어USA가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의 모금 목표액은 5만 달러로, 군종 사역과 전쟁 미망인, 피난민 지원, 집수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강태광 목사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후 지난 10개월 동안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겪고 있는 전쟁의 폐해는 실로 엄청나다. 주택 파괴와 시가지 전투로 집을 나온 피난민들이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다”며 “수많은 사상자는 말할 것도 없고, 기간 시설의 파괴로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삶은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강태광 목사는 이어 “남가주의 모든 교회가 ‘이 시대의 강도 만난 자’가 누구인지 함께 고민하고,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졸지에 고아가 된 어린아이들을 향한 관심이 시급하다”며 “우크라이나 돕기 연말연시 사랑의 나눔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월드쉐어USA는 우크라이나 군종 목사인 키치 목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겨울나기를 특별 지원해 왔으며, 최근에는 화재로 집이 전소된 가정과 전쟁미망인, 고아들을 지원하는 사역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연말연시 생명의 빵 나눔 캠페인 동참은 전화 323-578-7933(강태광 목사)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1면 “美 50개 주 노숙자 ‘예수 제자’ 로...” 이어]



LA 다운타운 홀리스들과 나눔 음식을 준비하는 아버지밥상 형제들

삶 변화 되어 그리스도께 헌신할 때 가장 큰 감격 300명 훈련 받으며 사역 할 수 있는 센터 확보 기도

요즘 아버지 밥상교회는 노숙자들이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월동장비 마련에 여념이 없다. 특별히 지금 사용하는 센터가 30여 명 밖에 생활할 수 없어 더 큰 센터로 확장이 필요하다. 쉼터에 거하지 못하는 노숙자들에게 필요한 개인 텐트, 침낭, 겨울 잠바, 전기 히터, 비상구 구비도 시급한 상황이다. 잦은 고장으로 사역자들의 발을 묶어 놓는 노후 된 차량도 교체가 필요하다.

무디 고 목사는 “300명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아버지밥상 사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며, LA의 부흥과 미주 50개 주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이 사역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버지 밥상교회 봉사나 후원을 원하는 개인이나 교회, 단체는 전화 213-364-7289로 문의할 수 있다.

정기정 목사 신간 「기도교실」 “1만 글로벌 기도 동역자들과 집필”



◆ 기도교실 | 정기정 목사
좋은땅 | 236쪽

미국 남가주에서 샘물교회(남침례교단)를 담임하는 정기정 목사가 신간 『기도교실』을 출간했다.

『기도교실』은 저자가 기도에 대한 고민과 응답,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쓴 책으로, 기도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기도, 구체적인 기도하는 방법 등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의문을 가졌을 법한 기

도에 대한 15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각 주제의 말미에는 QR코드로 그 주제의 영상으로 연결되도록 해 글과 영상을 통해 기도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책의 마지막에 ‘소그룹 인도를 위한 질문들’을 넣어 이 책을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공유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자는 평소 ‘성경적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예수님의 기도’ ‘기도의 기쁨’ 등에 대해 고민했었고, 그러던 중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 오프라인 예배가 중지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됐다.

코비드 팬데믹은 기독교계에 큰 어려움을 불러왔고 온라인 예배가 익숙하지 않거나 그럴 여건이 되지 않는 교회에는 아주 큰 위기로 다가왔다. 하지만 저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을 밀렸던 숙제를 하자는 마음으로 기도에 대해 연구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 채널 ‘샘물소리’(www.youtube.com/saemmoolchurch)를 통해 성도들과 깨달음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1년 만에 1만 명의 구독자들이 기도 동역자가 됐고, 신간 기도교실은 그들과 함께 세

상에 나오게 됐다.

정기정 목사는 “기도에 대해 알고자 하는 분들, 더 깊은 기도를 체험하고자 하는 분들, 그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은혜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 정기정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요, 다섯 아이들의 아버지, 행복한 담임 목사이며 성경 선생이다. 선교의 꿈을 꾸며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에 진학했으나 재학 4학년 때 부르심을 받고 미국으로 이주하여 목회자가 되었다. 코헨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수속했고, 현재 게이트웨이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기도에 대한 고민, 수많은 임상과 응답을 통해 『기도교실』을 집필할 수 있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열정을 전파시키는 일, 변화를 꿈꾸게 하는 은사로 1만 5천 글로벌 성도들이 하나님에 의도하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돕고 있다.



샘물교회 정기정 목사

김동욱 기자



(원) 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원) 국제이비스 USA 이사장
(원) 남가주 교외임의외 교문 변호사
(원) 제비발향기 협회 교문 변호사
(원) 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동환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브리짓교회 소개합니다②] 주백성교회



주백성교회 김성규 목사

주백성교회는 2018년 1월 7일 첫 번째 주일에 개척시작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개척멤버들과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교회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주백성교회의 비전은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 되어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자”이다. 이 비전을 위해서 세운 목표는 말씀과 사랑으로 바른 신앙을 전수하고, 말씀과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여, 세상을 그리스도께 드리자 이다. 이것이 주백성교회의 비전이고 목표이다. 그래서 주백성교회는 말씀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려고 지난 5년동안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백성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을 강조하며 집중하고 있다. 하나님께 응답 받은 바가 있어 펜데믹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예배를 드렸고, 이 힘든 시기를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내자는 마음으로 거의 3년 동안 매 주 4번씩 10-15분 사이의 큐티영상을 만들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또 금요성경공부를 줌으로 계속 실시하다가 최근에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공부하고 있다.

2023년 1월부터 주일에 성경의 세계를 공부할 계획이다. 젊은이들이 주로 선호하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아바타를 만들어 구약과 신약의 주요 장소들을 찾아 다니면서 시간 순서대로 일어났던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성경공부와는 새로운 방식으로 성경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주백성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믿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주백성교회는 선교중심의 교회가 되기 위해 영혼구원을 위해 힘쓰고 있는 여러 단체들과 협력하며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주백성교회는 세워진 처음부터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Come Mission 선교단체의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협력사역을 해왔다. 또한 정기적으로 다운타운의 홈리스를 위해 생필품을 전달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실시해 왔고, 이를 위해 Love Hope Together 단체의 지원을 받기도 했다.

2023년 1월부터는 새로운 선교사역을 시작하려고 한다. 그동안 홀부모인 싱글맘과 싱글대디 자녀들과 저소득층 자녀들을 중심으로 무료로 어린이 사역을 해오던 HGM School과 협력하여 주백성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복음과 성경을 가르치



고, 한글학교를 하고,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등 악기를 가르치는 사역을 할 계획이다.

이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 차세대의 어린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게 될 뿐 아니라, 복음을 통해 영혼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으로 양육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다. 더욱 기대하는 것은 자녀를 통해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아직 한글학교 선생님과 악기를 가르칠 선생님이 채워지지 않아 자원봉사로 어린 자녀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주백성교회 김성규牧사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잘 세워지기 위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며 “주백성교회가 말씀 중심, 선교 중심의 교

회가 되어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에 어린 자녀들을 복음과 말씀으로 잘 섬기고, 한글학교와 악기교육을 통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잘 심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백성교회

주일예배 : 오전 8:30, 오전 11:00

수요일예배 : 저녁 7:30

금요 성경공부 : 저녁 7:30

새벽예배 : 화-토 새벽 6:00

주소 : 3020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홈페이지 : <https://gpmc.tistory.com>

버지니아 워싱턴 대학교 한국어 임상목회상담 박사과정

목회자와 교회 리더의 생명 돌봄사역에 동참 기대

버지니아 워싱턴 대학교의 Neal T. Jones 신학 대학원은 ATS(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신학 대학원 협의회)의 정회원 학교로 10년 인준을 받았다. ATS는 풀러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벤더빌트 신학교, 프린스턴 신학교, 예일 신학교, 달튼 신학교 등 북미 유수의 신학교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위 인준 기관이다.

이번에 버지니아 워싱턴 대학교(Washington University of Virginia) 신학 대학원의 임상목회상담 박사과정 디렉터가 된 김진세 박사는 “임상목회상담 박사과정은 상담학의 전문적 지식과 생명 돌봄의 소명에 기반한 심리와 영성의 온전한 곧 전인치료를 지향한다. 교회의 현실을 고려하며 실제 적용 가능한 현장성이 강조된 전문 상담 교육을 통해 목회 상담 전문가를 양성한다”며 “이번에 수정된 한국어 박사 과정 커리큘럼과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해 더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이 상담 훈련을 받고 교회 현장에서 전문성을 띤 생명 돌봄 사역

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버지니아 워싱턴 대학교의 이번 한국어 임상목회상담 박사과정은 목회 심리치료, 상담의 과정과 기법, 인지 이론과 목회 상담의 적용, 상담자의 영성과 정체성, 트라우마와 위기상담, 중독 행동의 접근과 치료, 교회 상담 프로그램 개발, 정신병리와 치료 등 교회 안에서 이뤄질 수 있는 상담을 위한 필수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과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개인의 학업 진행에 따라 2년에 필수과목을 끝내고 논문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논문 과정은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중심으로 작성될 예정이다.

김진세 박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주정부 인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버지니아에 등록된 상담 감독(슈퍼바이저)이다. 2022년 현재 모든 교수진이 상담 PhD를 소지하고 있다. 이번에 한국에서 이관직 교수(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부총장)가 상담학과 교수진에 합류했다.

박사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는 연장교육, 워크숍, 정기 세미나 등이 제공되며 버지니아 워싱턴 대학교의 평생 교육원, 학위과정 및 학교 주관 세미나에서 강의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상담 학과 정기 발간지 투고, 학교가 운영하는 워싱턴 다문화 상담 센터 시설 이용, 지역 상담 기관을 통한 실습 기회의 연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자격증을 가진 상담 전문가에게 교회 상담 사례 컨설팅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의 조언도

받을 수 있다.

2022년 졸업생 중 한 명은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에반겔리아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다른 한명은 북버지니아에 소재한 워싱턴 가정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다.

◆ 과정문의:
임상목회상담 박사과정 디렉터 김진세 jinkim@wuv.edu, 703-672-1827
입학문의: info@wuv.edu, 703-333-5904
주소: 4300 Evergreen Lane, Annandale, VA 22003

P-H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2.90%이자가 가능

NEW

2023 HYUNDAI IONIQ5 SE

NEW

2023 HYUNDAI SANTA FE SE

NEW

2023 HYUNDAI SANTA CRUZ SE

NEW

2023 HYUNDAI TUCSON SE

2.90% APR Financing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 60개월까지 할부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60 Months

HYUNDAI Getaway Sales Event

Happy Christmas

0% APR for up to 26 months

Payments for 90 days on select models plus \$500 holiday bonus cash

HYUNDAI

1-888-644-7114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우분트선교회 “현지교회 목회자 발굴해 세계 선교 동역자 세운다”

우분트선교회(이사회 회장 홍성욱 목사)는 공부하는 선교교회다. 신학과 선교학의 학문적 소양을 갖춘 목회자들이 목회와 선교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세미나를 갖는다. 선교회 세미나는 목회 현장을 나누며 건강한 교회 성장에 관하여 토의가 이뤄지고, 선교 현장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선교의 열정을 더한다.

우분트선교회는 2007년 필리핀의 빈민선교를 위해 설립된 CAMP(Center for Asian Mission for Poor)로부터 출발했다. 2015년 11월 필리핀 이외 지역으로의 세계를 대상으로 한 선교지 확장을 위하여 우분트선교회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우분트(Ubuntu)라는 말은 아프리카 반투족의 언어로 내가 있어서 내가 있다는 의미로 영어로는 “I am because You are”라고 번역이 가능하다. 우분트 선교회에서는 이 말을 복음 안에서 서로 약함을 보듬어, 함께 성장하며 축복을 공유하자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우분트선교회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진 선교교회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중국교회를 깨워서 세계선교에 동역자로 세운다는 것이다. 1997년부터 우리와 관계를 맺고 꾸준히 양육 받아 온 중국 내 성도들이 중국 내에 교회를 세우고 잘 이끌어 나가고 있으며, 이제는 세계선교 현장에 동역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몸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우리 선교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중국교회를 세계선교 현장의 동역자로 세워나감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



우분트선교회 이사회 회장 홍성욱 목사

한 일이다. 둘째는 현지교회 목회자를 발굴하고 양육하는 것이다. 현지 사정상 목사만이 목회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런 열악한 환경에도 복음전도는 계속되어야 하고 교회는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우분트는 현지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선교적 사명을 일깨워 주며, 또한 그들 중 사명자를 세우고 양육시켜서 현지 복음화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사역은 현지 장로교단의 요청으로 현지 교단 내 목사 계속 교육과정을 우분트선교회에 위임하여 매년 두 차례의 교육 수료 시 총회장과 우분트선교회 회장 공동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고 있다. 이

러한 사역은 개 교회만의 역량으로나 선교사만의 역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으로 전문화된 선교단체의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담임목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기에 의미가 있다.

우분트선교회가 현재 진행 중인 해외 선교사역은, 북한,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태국, 아프리카 등이다. 북한은 주로 성경배포 사역과 지하교회 관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북한을 제외한 다른 필드는 한 주간의 집중교육 방식으로 양육대상은 현지교회 사역자들을 위한 사역 훈련이다.

특히 캄보디아의 시아누크빌에는 약 3-5만의 중국인들이 있는데, 이들을 위한 복음증거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또 아프리카에 신학교 설립을 도모하고 있다. 우분트선교회의 국내사역은 동역자들간의 선교적 교회와 선교중심적 목회를 세우기 위한 사역으로 목회세미나, 선교세미나, 교회탐방 등을 통해 각 교회의 선교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우분트선교회는 믿음선교(Faith Mission)를 사역원칙으로 삼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인이시므로 그분께서 선교의 일체를 주관하시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이 기초 위에 사역별 강사 & 재정 전담식(Project Funding)으로 진행된다.

우분트선교회는 현재 약 120여 개의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참여하고 있으며, 운영이사 23명과 60여명이 후원이사가 섬기는 탄탄한 선교회이다. 선교회는 이사회 회장으로

홍성욱 목사, 부회장으로 강인구 목사(남양주 사능교회), 총무로 양인순 목사(인중운누리교회)가 서기로는 장인석 목사(수원 단비로교회)가 섬기고 있다.

우분트 선교회 이사회 회장으로 섬기는 홍성욱 목사는 장신대 장신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예수교 장로회(통합)에서 안수를 받았다. 홍목사는 군중 목사로 3년간 사역한 후에 영국으로 건너가 선교학을 공부했다. 선교학으로 학위(Oxford Center for Mission Studies 선교학 Ph.D)를 마친 홍목사는 목회자로 선교학 교수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안양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 교회의 급속한 성장을 이끌었고, WEC Korea 선교회 이사장, 국민희망실천연대 공동대표, 장신대 이사 등을 역임했다.

학자의 소양을 갖춘 홍성욱 회장은 선교학 개론(공저), 선교와 교회성장(공저), 교회만이 희망이다(두란노), 우리가 꿈꾸는 교회(두란노), 지혜 여행(넥서스), 내 삶에 찾아온 열 번째 기적(두란노) 등의 저서를 집필했다.

현재 홍목사는 30여 년의 목회에 이어서 선교에 우분트 선교회를 통하여 선교에 집중하고 있다. 홍목사는 중국 선교를 위해 50대 중반에 시작한 중국어를 정복할 만큼 중국 선교에 몰입하고 있다. 양육한 중국 그리스도인 실업가들이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 함께 일하면서 선교의 보람과 기쁨을 확인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2022 한국 종교 인구 : 개신교 20%, 불교 17%, 천주교 1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이 최근 2022년 종교인구 현황을 발표했다. '여론 속의 여론'은 2018년 1월 처음 조사를 시작해 2019년 2월까지 월 1회, 그 이후 격주 1회씩, 2022년 11월까지 총 23번 조사를 실시했다.

종교인 인구 늘어... 개신교, 불교, 천주교 순 남성보다 여성, 젊은층 보다 고령층 종교인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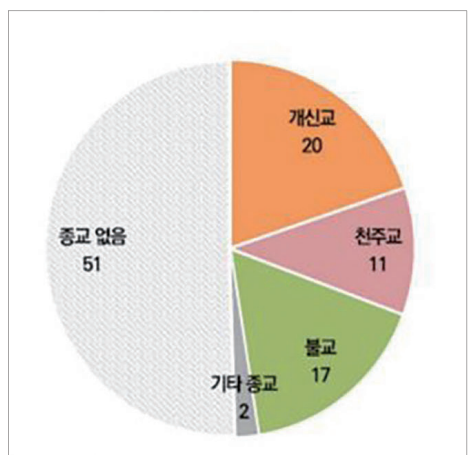
조사 결과 종교인구 비율은 무종교 51%, 개신교 20%, 불교 17%, 천주교 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때(무종교 56%, 개신교 20%, 천주교 8%, 불교 16%)보다 종교인이 늘어난 수치다.

성별을 비교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종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54%가 '현재 믿는 종교가 있다'고 답했으며, 개신교(22%), 불교(18%), 천주교(12%)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45%가 '믿는 종교가 있다'고 답했으며, 개신교(18%), 불교(16%), 천주교(9%) 순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18-29세는 남성이 여성보다 종교인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종교인 비율이 높았다. 60세 이상은 66%가 종교인으로 개신교(25%), 불교(23%), 천주교(17%), 기타(1%)로, 50대는 53%가 종교인으로 개신교(23%), 불교(20%), 천주교(9%), 기타(1%)로, 40대는 33%가 종교인으로 개신교(18%), 불교(15%), 천주교(8%), 기타(2%)로, 30대는 38%가 종교인으로 개신교(15%), 불교(13%), 천주교(8%), 기타(2%)로, 18-29세는 31%가 종교인으로 개신교(14%), 불교(8%), 천주교(7%), 기타(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개신교 신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불교와 천주교 신자의 비율은 큰 차이 없이 비슷했다. 대전/세종/충청 지역과 광주/전라 지역에서도 개신교 신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불교와 천주교가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그리고 강원/제주 지역에서는 불교 신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개신교와 천주교 순이었다.

1년간 종교의 변화를 묻자 9%가 있다고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이 발표한 2022년 종교인구 현황. ©여론 속의 여론

답했다. 이 조사는 올해 11월 11~14일, 11월 25~28일 두 번에 걸쳐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1년 전에는 믿는 종교가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고 답한 사람이 6%, 반대로 1년 전에는 믿는 종교가 없었으나 현재는 있다고 답한 사람이 2%였다. 1년 전과 현재 믿는 종교가 다르다는 응답은 1%였다. 종교별로는 개신교인(개신교)무종교 12%, 개신교)타종교 1%, 불교인(불교)무종교 9%, 불교)타종교 1%, 천주교인(천주교)무종교 8%, 천주교)타종교 1%, 무종교인(무종교)종교 4% 순으로 변화가 많았다.

김신의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준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크랜드,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프로그램 구성: 1년차 설교, 2년차 영성 형성, 3년차 리더십
- 신입생 모집 -
원서접수 2022년 11월 1일 마감
지원자격 -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수업기간 - 1년차 :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
수업장소 미국 캘리포니아 탈봇신학교 캠퍼스

UN, 북한인권결의안 18년 연속 채택... 韓, 4년 만에 공동제안국 참여

국회 외교통일위 “비정상의 정상화”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5일 유엔 총회에서 18년 연속 채택됐다. 특히 대한민국은 4년 만에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논평했다. 이들은 “앞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이후인 2019년부터 작년까지 북한 김정은 정권 눈치 보느라 불참하면서 대한민국에 ‘인권 후진국’이란 오명을 안겼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겨우 정상화가 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인권결의안 채택에 앞서 우리 정부를 포함해 31개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최악의 (인권) 침해자 중 하나는 북한 정권”이라며 “우리는 매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인권이라는 가치를 기념하고 누리고 있지만, 이 같은 권리를 부인하는 이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악의 인권 유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을 비롯해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혔던 탈북어민이 판문점에서 강제복송되는 모습. ©통일부

국제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며 “대한민국도 그래서 7년 전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취지로 북한인권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야 하는데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아직도 만들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법에 명시된 재단 이사회 추천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은 여야가 각각 5명, 통일부 장관 2명이 추천해 총 12명의 이사회를 구성하

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통일부가 재단 이사 추천 공문을 10회 이상 보내고 우리 당도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했지만 요지부동”이라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입만 열면 약자들의 인권을 외치면서 북한 인권 앞에만 서면 반(反)인권정당이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인권은 세계 보편적 가치다. 대한민국이 다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이 된 만큼, 민주당도 북한 인권에 더 이상 외면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한국 주요 교단 교인 수, 코로나 기간 약 50만 명 감소

지난 2년여 동안 국내 주요 4개 교단 교인 수가 50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예장 합동총회의 지난 2019년 교인 수는 2백55만6,182명이었지만 2021년의 교인 수는 2백29만7,455명으로 26만3,473명이 줄었다. 예장 통합총회는 같은 기간 2백50만6,985명에서 2백35만8,914명으로 14만8,071명이 줄었다.

기독교대한감리교회(기감)의 경우, 역시 같은 기간 1백29만7,924명에서 1백24만6,239명으로 5만1,658명이 줄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는 43만922명에서 41만1,060명으로 1만9,862명이 줄었다.

이들 4개 교단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감소한 교인 수는 모두 48만3,064명이었다. 교계 한 관계자는 “한국교회는 이미 수년 전부터 교세 감소 추세였기에 최근 2년 간 교인 수가 준 것이 반드시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며 “코로나19가 교세 감소 추세를 더욱 가속화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같은 기간 교회 수는 △예장 합동총회 1만1,758개→1만1,262개(-496개) △예장 통합총회 9,288개→9,421개(+133개) △기감 6,695개→6,652개(-43개) △기성 2,875개→3,143개(+268개)다. 김진영 기자

오정현 목사, 송실대 이사장 취임 “수선대후의 명문 되길 기도”

21일 송실대서 제24대 이사장 취임 감사예배

송실대학교 제24대 오정현 이사장 취임 감사예배가 21일 오전 송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예배는 김선욱 부총장(송실대)의 사회로, 신앙고백, 교독문 낭독, 장범식 총장(송실대)의 기도, 사랑의교회 사랑채배&양상철의 특별찬양, 이배용 위원장(국가교육위원회)의 성경봉독,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의 설교, 합심기도, 취임패·매달·선물 증정식, 오정현 이사장의 취임사, 감사패 증정,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김태영 목사(예장 통합 증경총회장)의 격려사, 나경원 부위원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최희연 교육감(서울특별시)의 축사, 광고, 교가제창, 홍정길 목사(남서울교회 원로)의 축도 순서로 진행됐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설교한 김장환 목사는 “민족 최초의 대학 송실대학교는 진리와 봉사 이념으로 125년 동안 실력으로 무장해 인재를 양성해 왔다”며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배위랑(W.M.Baird) 박사가 자기 사저 일부를 사용해 학교를 시작함으로 지금의 위대한 송실대학교가 되었다”고 했다.

이어 “루비 켄트릭 선교사(Ruby R. Ken-



오정현 이사장이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drick, 1883-1908)의 묘비에는 ‘내게 천 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고 쓰여져 있다. 오늘 취임하시는 오 목사님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송실대학교를 섬길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제24대 이사장직에 취임하는 오정현 목사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송실대 이사장으로 있을 때에 앞으로 송실대학이 눈부신 발전과 세계가 주목할 대학으로 발전하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성기 목사(송목회 대표)의 인도로, 세 가지 기도제목을 가지고 합심기도 하는 시간을 가진 후 새롭게 취임하는 오정현 목사에게

취임패·매달·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정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이땅에 구세주로 오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린다. 부족한 제가 24대 송실대 이사장으로 섬기게 되었다”며 “송실이 걸어온 125년의 길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 섭리의 역사이고, 근대 교육의 새길을 만든 대한민국 사학의 역사이며, 부활 생명을 지닌 한국기독교 신앙의 역사이자 시대를 섬기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역사”라고 했다.

이어 “첫째, 한국교회 전체와 함께 하는 송실대학교, 둘째로 평양 송실의 꿈을 이루는 통일 한국 송실대학교, 셋째로 학문의 융복합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IT 송실대학교가 되는 비전에 사람에게는 진심,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송실은 이름 그대로 실질을 숭상하는 학교이다. 앞으로 하나님의 창조질서대로 개인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발견하여 마음

껏 봉사할 수 있는 실무구사의 주역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을 키우기를 원하다”며 “선대의 강점은 지키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수선대후의 명문 송실대학교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아울러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모든 송실인들의 팔과 노력이 소중한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제24대 이사장 오정현 목사가 제23대 이사장이었던 박광준 전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동원 목사는 이후 격려사에서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배위랑 박사는 이 땅에서 선교하면서 부산 초량교회와 대구 제일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송실학교를 세우셨다”며 “이제 오정현 이사장님이 사랑의교회 파트너십을 넘어 한국교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놀라운 세계 선교의 새날이 열릴 것을 믿고 격려한다”고 했다. 장지동 기자

CDTV 미주기독교일보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교정보
기독교일보 유튜브

정확하고 최고로 빠른 리페! 5년 연속 환자 만족도와 의료진의 진료 수준 별 5개의 최우수 등급 메디칼 그룹!

시니어분들이 건강 영웅! 서울메디칼그룹



※ 광고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실제 환자는 아니며 서울 메디칼 그룹의 모델투임을 알려드립니다.

프랭클린 그래함, 가수 에이미 그랜트 동성결혼식 주최 비판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CCM가수 에이미 그랜트 부부가 농장에서 조카를 위한 동성결혼식을 주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동성애는 죄라고 비판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그래함 목사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다. 그분의 말씀은 동성애가 죄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래함 목사는 그랜트가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을 언급했다. 그랜트는 “예수님은 그것을 두 가지로 줬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면서 그녀와 남편이 그들의 농장에서 조카 결혼식을 주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P 보도에 따르면 결혼식은 가족의 첫번째 ‘신부와 신부’ 간 결혼이 될 예정이다.

그래함 목사는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신다는 데 동의했지만 요한복음 14장 15절을 인용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 순종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

과 관계를 맺고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을 보내기 위해서는 죄에서 돌이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래함 목사는 사도행전 3장 19절을 인용하면서 성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그들의 영혼과 그들이 영원을 보낼 곳을 돌보는 것”이라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진리를 그들에게 말할 만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우리가 결코 타협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랜트는 최근 문화에 기여한 공연예술가에게 수여되는 상인 ‘케네디 센터 공로상’(Kennedy Center Honors)을 받은 최초의 CCM 가수였다.

조카가 동성애자라고 공개한 사실을 알게 된 그랜트는 “솔직히 신앙의 관점에서 나는 항상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두 가지로 줬어’라고 말했다. 그건 아주 간단하다”라고 말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BGEA

했다.

2013년 그랜트는 성소수자 뉴스 웹사이트인 프라이드소스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신앙과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

그는 “종교계가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저는 신앙의 여정

이 우리를 공동체로 인도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하나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신앙의 여정은 관계를 갖기 위해 기꺼이 열려 있다. 그리고 모두를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그랜트는 지난해 ‘프라우드 라디오’ 진행자 헌터 켈리에게 ‘환영 테이블’을 차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말했다. 그랜트는 당시 “누군가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게이 스트레이트 상관 없다’라고 밝힌 테이블에 초대받았다”고 말했다.

처치리더스에 따르면, 그랜트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며 “나는 사랑받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을 때 우리는 모두 최고의 자아가 된다. 그러면 우리의 창의력이 꽃피게 된다. 우리는 ‘당신의 테이블과 나의 테이블에 꽃을 놓을게요’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사랑받을 때, 우리에게 오는 모든 좋은 충동에 ‘예’라고 말할 만큼 용감하다”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2018년 이후 5년간 美 교회에 대한 적대행위 420건 발생”

가족연구위원회 보고서 발표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교회에 대한 적대행위가 최소 420건 발생했으며,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적대행위 중 57건이 낙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워싱턴에 기반을 둔 기독교 보수운동 단체인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는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하고 2018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공개된 데이터를 분석해 미국 45개 주와 워싱턴 D.C.의 교회 397곳을 대상으로 한 적대행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행위에는 기물파손, 방화, 총기 관련 사건 및 폭탄 위협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이러한 공격의 심각성과 빈도가 잠재적으로 기독교 공동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FRC 종교자유센터(Center for Religious Liberty) 부국장 아리엘 델 투르코(Arielle

Del Turco)가 작성한 보고서는 “점점 더 유대-기독교 가치를 거부하는 서구 문화가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는 것에 대해 우려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에는 교회에 대한 적대 행위가 50건 있었다. 2019년에는 그 숫자가 83건으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54건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일 때 정부의 제한조치와 전반적인 이동 감소 때문일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2021년에는 교회에 대한 적대 행위가 96건 발생했다. 2022년 1월부터 9월 사이에는 137건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2022년 3월 플로리다 주 바토우에 소재한 메인 스트리트 침례교회 건물이 방화공격으로 파괴됐다.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소노라의 여정교회(Journey Church)도 지난 3월 방화 공격으로 파괴됐다.

지난 7월, 워싱턴 D.C.의 메릴랜드 교외에 있는 노스 베데스다 연합감리교회와 세인트 제인 프랜시스 드 찬탈 카톨릭 교회 두 곳에

서 화재가 발생했다. 또한 몽고메리 카운티에 위치한 세 번째 인근 교회인 베데스다와 일드우드 침례교회가 파손됐다.

이 보고서는 인구가 많은 주에서 더 많은 사건이 보고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는 51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했다. 텍사스는 33건, 뉴욕은 31건, 플로리다는 23건이었다. 델라웨어, 몬타나,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및 버몬트는 보고 기간 동안 알려진 사건이 없는 유일한 주였다.

델 투르코 부국장은 보고서에서 “기물 파손 범죄 행위와 교회 재산 파괴는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경외심과 존중이 무너지는 징후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낙태에 대한 국가적 권리를 뒤집은 미국 대법원 판결 초안이 지난 5월 2일 유출되었을 때, 낙태 찬성 시위자들이 교회 예배를 방해하거나 기물 파손 및 낙서하는 사건이 급증했다.

이러한 추세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지난

6월 24일 뒤집힌 이후 계속됐다.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최소 57건의 사건이 낙태 찬성 시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거나 낙태 찬성 메시지를 포함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는 단 5건의 사건만이 낙태와 관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캔자스 주 로렌스에 소재한 빅토리 바이블 교회는 지난 8월 1일 “낙태에 관한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메시지로 밤새도록 파손되었다”고 한다.

FRC는 “교인들과 성직자들에게 교회에 대한 그러한 적대 행위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델 투르코 부국장은 “교회에 대한 적대 행위는 지역사회에서 교회를 원하지 않거나 일반적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라며 “이로 인해 교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적대감의 목표가 교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청소년 목회자의 탈진을 예방할 5가지 방법은?

미국 십대 복음사역자 그렉 스티어 칼럼 기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그렉 스티어(Greg Stier)가 쓴 ‘청소년 목회자의 탈진과 이직을 예방하는 5가지 쉬운 방법’이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스티어는 미국 청소년 복음사역 단체인 데어투쉐어 인터내셔널(Dare 2 Share Ministries International)의 설립자이자 회장이다.

그는 칼럼에서 “청소년 목회자의 평균 체류 기간이 18개월이라는 무서운 통계를 본 적이 있다. 정확한 숫자는 확인할 수 없지만 십대 목회자의 탈진과 이직이 현실임은 분명하다”라며 5가지 예방 지침을 제시했다.

1. 청소년 사역을 교회 전체의 우선순위로 삼으라
2. 영혼을 돌보는 일에 최우선 하라.
3. 그들이 머물 가치가 있는 비전을 제시하라.
4. 경력을 쌓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급여를 지급하라.
5.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도 참여시켜라.

청소년 목회자들은 전혀 새로운 도전(젠더 문제, 성소수자 투쟁, 미국 역사상 최초의 탈기독교 세대의 일원이 되는 등)을 떠안은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십대들과 마주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열렬한 기도와 지원이 필요하다.

강혜진 기자

‘기독교 연사’ 초청 거부한 미 대학, 법원서 패소

네브래스카대학, 기독교 학생 클럽에 3만불 상당 지불 합의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교회에 대한 적대행위가 최소 420건 발생했으며,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적대행위 중 57건이 낙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워싱턴에 기반을 둔 기독교 보수운동 단체인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는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하고 2018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공개된 데이터를 분석해 미국 45개 주와 워싱턴 D.C.의 교회 397곳을 대상으로 한 적대행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행위에는 기물파손, 방화, 총기 관련 사건 및 폭탄 위협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이러한 공격의 심각성과 빈도가 잠재적으로 기독교 공동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FRC 종교자유센터(Center for Religious Liberty) 부국장 아리엘 델 투르코(Arielle Del Turco)가 작성한 보고서는 “점점 더 유대-기독교 가치를 거부하는 서구 문화가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는 것에 대해 우려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에는 교회에 대한 적대 행위가 50건 있었다. 2019년에는 그 숫자가 83건으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54건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일 때 정부의 제한조치와 전반적인 이동 감소 때문일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2021년에는 교회에 대한 적대 행위가 96건 발생했다. 2022년 1월부터 9월 사이에는 137건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2022년 3월 플로리다 주 바토우에 소재한 메인 스트리트 침례교회 건물이 방화공격으로 파괴됐다.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소노라의 여정교회(Journey Church)도 지난 3월 방화 공격으로 파괴됐다.

지난 7월, 워싱턴 D.C.의 메릴랜드 교외에 있는 노스 베데스다 연합감리교회와 세인트 제인 프랜시스 드 찬탈 카톨릭 교회 두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또한 몽고메리 카운티에 위치한 세 번째 인근 교회인 베데스다와 일드우드 침례교회가 파손됐다.

이 보고서는 인구가 많은 주에서 더 많은 사건이 보고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는 51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했다. 텍사스는 33건, 뉴욕은 31건, 플로리다는 23건이었다. 델라웨어, 몬타나,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및 버몬트는 보고 기간 동안 알려진 사건이 없는 유일한 주였다.

델 투르코 부국장은 보고서에서 “기물 파손 범죄 행위와 교회 재산 파괴는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경외심과 존중이 무너지는 징후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낙태에 대한 국가적 권리를 뒤집은 미국 대법원 판결 초안이 지난 5월 2일 유출되었을 때, 낙태 찬성 시위자들이 교회 예배를 방해하거나 기물 파손 및 낙서하는 사건이 급증했다.

이러한 추세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지난 6월 24일 뒤집힌 이후 계속됐다.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최소 57건의 사건이 낙태



미국 네브래스카주의 링컨시에 위치한 네브래스카 대학-링컨 캠퍼스. ©네브래스카 대학 링컨 페이스북

찬성 시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거나 낙태 찬성 메시지를 포함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는 단 5건의 사건만이 낙태와 관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캔자스 주 로렌스에 소재한 빅토리 바이블 교회는 지난 8월 1일 “낙태에 관한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메시지로 밤새도록 파손되었다”고 한다.

FRC는 “교인들과 성직자들에게 교회에 대한 그러한 적대 행위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델 투르코 부국장은 “교회에 대한 적대 행위는 지역사회에서 교회를 원하지 않거나 일반적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라며 “이로 인해 교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적대감의 목표가 교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박은성 담임목사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이미애 담임목사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한주봉 담임목사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이현욱 담임목사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송재봉 담임목사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박지상 담임목사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JOE HONG 담임목사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ISAIAH LEE 담임목사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장경호 담임목사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제임스김 담임목사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남상권 담임목사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김상현 담임목사
남가주 주안예성결교회
8322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213)422-6388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오상규 담임목사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김창곤 담임목사
남가주은혜선교교회
300 Vallejo Dr. Glendale, CA 91206
T. (310)713-3006

차권희 담임목사
늘워킹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 (213)598-6878

강은덕 담임목사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kd@hanmail.net

김영일 담임목사
더섬기는교회
4100 W Commonwealth Ave #102, Fullerton, CA 92833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정용암 담임목사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신용석 담임목사
로고스라이프교회
4872 Bishop St. Cypress, CA 90630
T. (714)673-2141

정달성 담임목사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김명구 담임목사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92506
T. (909)247-7355

서민수 담임목사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장헌석 담임목사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 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윤혁 담임목사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이정민 담임목사
새생명감사교회
111 N. Virgil Ave. Los Angeles, CA 90004
T. (626)773-1131

신현우 담임목사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곽태규 담임목사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장통훈 담임목사
선민교회
3388 W. 8th St. #204, Los Angeles, CA 90005
T. (213)700-5638

임상훈 담임목사
섬김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 8129

이석기 담임목사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김요한 담임목사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정찬군 담임목사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김지연 담임목사
원웨이침례교회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최주철 담임목사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표희곤 담임목사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류연주 담임목사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김성규 담임목사
주백성교회
3020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T. (818)633-1241

양수용 담임목사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권혁래 담임목사
카마리오 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조인 담임목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pccc.com

류광현 담임목사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김용근 담임목사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정하이 담임목사
크로스교회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오충성 담임목사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양국민 담임목사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dsgc@gmail.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유하여,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대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션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영광과 영광을 나누어 주는 성령의 공동체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령 새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강지원 담임목사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화해가 있으며 신과 진리는 교회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도 사랑하는교회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치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곽부한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살며 사명을 변화시키는 사명의 공동체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안정섭 담임목사
밸리연합감리교회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의견은 공화당원(88%)이 민주당원(66%)보다 월등히 높았다.

김경진 담임목사
기쁨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美 교사, 트랜스젠더 대명사 사용 거부하다 해고당해

학교 상대로 소송 제기

한 기독교학교 교사가 트랜스젠더 학생이 선호하는 이름 사용을 거부하다가 해고당한 뒤, 미 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학교 측을 고소했다.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에 따르면, 비비안 제라티(Vivian Geraphty)는 오하이오주 잭슨메모리얼중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재직 중이었다. 그런데 올해 8월 26일 학생 한 명이 그녀에게 자신의 새로운 성 정체성에 맞는 새 이름을, 또 다른 한 명은 새로운 대명사를 사용해 달라고 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제라티는 학교 측에 자신의 (기독교) 신앙 때문에 학생들에게 성 정체성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했으나, 학교 측은 그녀에게 사직을 강요했다. 결국 그녀는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그녀의 법적 대리를 맡은 자유수호연맹(ADF)은 “헌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미 공립학교에서 정부가 승인한 견해를 채택하고 시행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요된 정통주의로부터 자유가 지닌 속성은, 학교에서 반대되는 견해를 없애려는 정부의 시도를 비판한다”고 했다.

제라티는 8월 26일 오전 9시 30분 교장에게 자신의 우려사항을 전달했고, 학교 행정관은 그녀에게 “공무원으로서 (개인의 종교적) 신념은 제쳐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오전 11시 30분에 강제 사직당했고, 건물 밖으로 인도됐다.

제라티의 고소장은 그녀에 대해 “매일 자신의 신앙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고백하는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그녀의 신앙은 학교에서 자신의 종교



©Unsplash

교적 신념을 긍정적으로 전달하려고 명령하지 않으며, 그녀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신앙이 부도덕하거나 부정적하거나 유해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발언을 자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 “그녀는 아이들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삶의 변화를 위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보호하길 바란다”며 “성 정체성 문제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사춘기 차단제, 호르몬 대체법 등 성전환 수술을 포함해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지닌 아이들을 위한 특정 치료는 돌이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그 장기적 결과를 판단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의학적 전환은 절대 아이들에게 권장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녀가 스스로 비진리라고 여기고 학생들에게 해롭다고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강요함으로써 이러한 메시지를 소통하게 하고 학생들의 사회적 전환에 동참시키는 것은 그녀에게 해롭다. 또 즉각적이고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육체적 영향을 끼치는 위험에 적극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도 해롭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미국인 4명 중 3명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사라졌다”



©Ben White/ Unsplash.com

고 말했으며, 거의 절반(48%)은 “1월 첫째 주에 트리 장식을 치운다”고 말했다. 반면 5명 중 1명 이상(23%)은 “1월 말까지 장식을 유지한다”고 답했다.

또 미국인의 10명 중 약 9명(87%)은 추수감사절 이후가 “공공장소에서 성탄절 음악을 연주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미국인의 과반수(54%)는 성탄절 음악 중에 가장 듣기 싫은 노래 제목을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듣기에 짜증 나거나 과장된 성탄절 노래 1위는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12%)가 꼽혔다. 2위는 “Jingle Bells”(6%), 3위는 “Grandma Got Run Over by a Reindeer”(5%)였다.

지난 2017년 퓨 리서치(Pew Research)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응답자는 미국인들이 “크리스마스의 종교적 측면을 덜 강조한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퓨 리서치는 보고서에서 “크리스마스의 종교적인 측면 중 일부가 공공 영역에서 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미국인의 생활과 개인적 신념에서도 쇠퇴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면서 “예전대 성탄절 이야기의 성경적 요소(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가 역사적 사건을 반영한다고 믿는 미국 성인의 비율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대부분의 미국인은 여전히 이날을 종교적인 휴일로 기념한다고 말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 행사를 기념한다고 말한 비율은 다소 줄었다”라고 덧붙였다.

2017년 당시 미국인의 55%는 “성탄절을 종교적인 휴일로 기념할 계획”이라고 답했으며 그중 46%는 성탄절이 “문화적인 휴일이기보다는 종교적인 휴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9%는 예수의 탄생일이 “종교적인 동시에 문화적인 휴일”이라고 인식했다.

미국인 4명 중 3명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잃었다는 데 동의하며, 5명 중 2명은 강하게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했다.

미국 남침례회 교단지인 뱍티스트프레스(BP)는 시장 여론조사 기업인 입소스(Ipsos)가 이달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성인 10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보도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잃었다고 답한 전체 미국인은 75%이며, 그중 42%는 강하게 동의, 33%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특히 기독교인은 84%로 이 의견에 가장 많이 동의했으며 절반(50%)은 강력하게 동의했다. 종교가 없는 미국인들도 5명 중 3명(60%)이 의견을 같이했다.

반면,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있었다는 데 동의하지 않은 미국인은 16%로, 10명 중 1명(10%)은 다소 동의하지 않았고 6%는 강하게 반대했다.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의견은 공화당원(88%)이 민주당원(66%)보다 월등히 높았다. 연령별로는 50세부터 64세, 65세 이상에서 81%가 가장 많이 공감했으며, 35-49세(72%), 18-24세(68%), 25-34세(66%)가 그 뒤를 이었다.

성탄절 트리 장식에 관해서는, 미국인 10명 중 8명 이상(85%)이 집을 장식한다

김유진 기자

신교부흥을 회복하라 #284

강태광 목사의 기독교 문학 산책

성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상훈 목사 주비전선교회 대표

필자는 지난 2020년에 멕시코 선교사로 파송 받기 위해 26년간의 목회를 마감했다. 하나님의 콜링이 열방을 향한 선교적 삶이라 믿고 있기에 다시 교회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본격적으로 선교사 일을 하면서 문득문득 지난 목회 사역 중에서 후회되고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생각나곤 한다. 그때마다 반성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런 시행착오는 겪지 않았다고 다짐하곤 한다. 연말을 보내면서 지난 목회를 돌아켜 볼 때 그래도 이것 한 가지는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한 것이 있다. 한 해의 마지막 12월의 설교를 새해와 미래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고 나누는 데 역점을 두었던 것이다. 목회 초반에는 새해가 시작될 후 신년 주일에 새해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나누었었다. 그러다가 깨달음이 들면서부터 새해에는 세워둔 계획을 첫날부터 실행해야지, 그때 가서야 계획을 나누는 것은 첫걸음부터 늦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부터는 송년 주일 비전 예배를 실행하였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하니 얼굴이 뜨거워진다.) 지난 한 해는 필자에게 다사다난한 해였다. 선교지에서 복귀할 무렵 두 번째 겪은 코로나로 인해 육체적으로 많이 약해졌다. 소홀했던 건강의 악화로 회복하기까지 힘겹게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은혜로 예전보다 더욱 왕성한 선교지 방문 사역을 수행한 해였다. 함께 선교 동력을 해오는 한 목사님이 필자를 두고 “여러 선교단체와 기관들을 아우르며 선교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사역자”라고 말한 것을 하나님의 분부처럼 여기고 선교 동역과 연합을 위한 선교 네트워크에 힘을 쏟으며 살려고 노력한다. 지난 30여 년간 교육과 구제와 교회 개척 지원으로 멕시코 선교를 담당하며 살았는데 필자가 2년여간 선교사로 그 속에 들어가 살면서 얻은 해답은 멕시코는 더 이상 구제 대상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멕시코 교회를 깨워 열방을 향해 나갈 선교 동역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멕시코 교회는 인적 물적 자원들이 많이 형성되었고, 교육의 수준도 세계 선교 지도자로 서기에 충분

분히 성장했다고 여겨진다. 필자는 그들과 세계선교의 동역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멕시코와 남미 선교의 방향을 잡아 나갈 것이다. 새해엔 1월부터 터키 교회 개척 사역 지원과 선교단체와 교회 연합의 동역을 통한 사역을 위해 선교 일정을 잡았다. 요사이 세계 선교 현황은 이슬람 나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가정교회 개척 운동과 복음주의 선교단체들의 팬더믹을 뚫는 선교 약진으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선교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고 있다.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슬람 나라들과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구약에서 이사를 비롯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 ‘메시아니 주’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다. 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거절한다. (사양한다) 기독교인이란 말은 안디옥에 있던 이방인들의 교회에게 붙였던 이름이니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받은 유대인이다. 필자는 그런 이스라엘의 ‘메시아니 주’와 그들이 말하는 이방인들인 복음주의 선교단체와 교회들과의 선교 연합을 위해 많은 부분을 일할 것이다. 2월에는 그 연합 네트워크를 섬기기 위해 이스라엘 선교 계획을 나누었다. 악한 사단의 힘은 아직도 엄중하다.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대하기 위해 이방의 나라들이 연합하는 것 같이 사단도 하나님의 선교 연합을 상대하기 위해 세상의 권세와 나라들, 그리고 주권자들을 총동원하여 대적할 것이다. 우리가 홀로 상대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선교 연합이 필요하고, 그 위에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수십 년간 나라를 다스렸고 이미 80세를 넘긴 브리튼의 리어왕은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리어왕에게는 3명의 딸이 있어서 세 딸에게 골고루 나라를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향한 딸의 사랑을 확인한 후에 나눠 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세 딸 중에 막내딸이 아버지를 가장 사랑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리어왕은 그 사실을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왕은 두 딸과 사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막내딸과 막내딸에게 청혼하는 버건디 공작과 프랑수아 왕도 참석시켰습니다. 왕은 상황을 설명합니다. 왕을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큰 몫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녀 “고너빌”이 유창하게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기 눈빛보다 소중한 생명과 자유보다 소중한다고 느낀 것을 씁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장녀와 사위에게 나라 일부를 주었습니다. 이어서 둘째 딸 “리건”은 말합니다. 언니가 말한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이나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한 사랑도 제 가슴을 비집고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왕은 둘째 딸의 사랑도 흡족하게 받아들입니다.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첫째와 둘째로부터 흡족한 사랑의 고백을 받은 리어왕은 큰 기대를 걸고 막내딸을 보았습니다. 사실 유치하게 사랑을 확인하는 일은 막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왕은 막내의 사랑의 마음을 알았고 기회를 주기 위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딸 “코델리아”는 말과 마음이 서로 다른 언니들의 아침이 너무 싫었습니다. 언니들의 가식도 싫었고 잘 아시면서 그 거짓말에 흡족해 하는 아버지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도리로 왕을 사랑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냉정하고 무뎛뎛하게 대답했습니다. 왕은 자신이 총애했던 막내딸 코델리아가 이런 식으로 대답하자 너무 서운했습니다. 왕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셋째 딸 코델리아는 왕은 단지 자신의 아버지이며 아버지가 지식을 키우고 사랑하신 것을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합당한 도리로 자신은 아버지 말에 복종했고, 누구보다 아버지를 존경한다 했습니다. 리어왕은 분을 사하지 못했습니다. 리어왕은 불같이 화를 내며 경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왕은 코델리아의 몫이었던 영토를 두 언니와 그녀의 남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두 딸의 영지를 차례로 찾아가 살겠다고 했습니다. 신하들은 몹시 놀랐지만 왕에게 진언하기 어려웠습니다. 왕의 신하 가운데 켄트 백작은 코델리아를 두둔하며 왕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어왕은 켄트 백작의 충언은 받아들이지 않고 백작을 추방해 버렸습니다. 노한 왕은 막내를 지참금 없이 결혼을 시키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버건디 공작은 떠났습니다. 프랑스 왕은 지참금이 없어도 코델리아와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코델리아는 추방당하듯 프랑스로 갔습니다. 리어왕은 자신의 말대로 왕위에서 물러나 큰딸과 작은딸에게 나라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큰딸의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달 정도 살았는데 큰딸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리어 왕을 무시하고 괴롭힙니다. 화가 난 왕은 둘째 딸을 찾아 갑니다. 그런데 둘째 딸도 똑 같습니다. 왕은 부도덕한 딸들에게 복수를 위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막내 코델리아가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영국으로 왔습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코델리아와 재회한 왕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어리석었던 지난 일을 잊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코델리아와 화해하였습니다. 리어왕을 도왔던 글로스터 백작은 둘째 딸 리건의 남편 콘월에 의해 눈이 밝힌 채 추방당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글로스터 백작의 하인이 콘월 공작을 죽였습니다. 리어왕의 두 딸들은 아버지

에 대한 불효뿐 아니라 남편에 대한 사랑도 위선적이었습니다. 두 딸은 자신의 남편들 몰래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공고롭게 같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글로스터 백작의 패륜아들 “에드먼드”였습니다. 콘월 공작이 죽자마자 리건은 에드먼드와 결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질투심에 눈이 뒤집힌 고너빌은 동생 리건을 독살했습니다. 동생 독살 사건으로 모든 전모가 밝혀지면서 고너빌의 외도와 죄가 드러났습니다. 남편 올버니 공작은 독살과 불륜을 이유로 고너빌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결국 고너빌은 좌절된 사랑에 화병과 동생을 죽인 양심의 가책으로 자살하면서 사악한 두 딸은 모두 죽었습니다. 올버니 공작과 에드먼드 백작이 이끄는 영국군이 프랑스로 이기고 리어왕과 코델리아는 포로가 됩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에드먼드 백작이 왕과 막내딸을 살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에드먼드도 자신의 형인 에드거의 손에 죽습니다. 한편 리어왕 막내딸은 에드먼드 부하에게 피살되고 리어왕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막내딸의 죽음을 알게 된 리어왕은 얼마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리어왕의 충신이었던 켄트 백작도 왕을 따라 죽었습니다. 이상은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의 하나인 <리어왕> 줄거리입니다. 리어왕은 켈트족 신화에 나오는 왕으로 영국 문학에 종종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전래 동화 같은 이야기를 셰익스피어는 명작으로 각색했습니다. 리어왕의 비극의 출발은 딸의 사랑을 확인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랑을 확인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사랑의 대가가 고려되는 상황에서 사랑의 확인은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리어왕>에는 ‘임으로 설명되는 사랑’에 속지 말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셋째 딸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던 리어왕이 두 딸의 발표용 사랑고백에 넘어간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작품<리어왕>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셋째 딸이 아버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잘 표현했더라면 일련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이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2022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세례 최고의 교수진,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실용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 (I-20) 발급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성경지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www.ggbts.edu / KEB@GGTS.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연락문의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www.gbtlis.org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면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맡은 자에게 구할 충성(2)

고린도전서 4:1~13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1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군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찌어다 2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3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4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5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6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불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중략)...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9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10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11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체가 없고 12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13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3. 2절의 맡은 자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이스', 우리말로로는 집사(執事)로서 하나님의 일을 손에 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이 일을 놓지 않고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쥐어주신 일로 생각하고 직분과 직책을 감당할 때 온전히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이라는 말은 '나누어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거리를 손에 잡았다면 그것을 손에서 잠시도 내려놓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의 관계에 있어서 수직적인 연결고리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가 직분을 빼앗기고 자살을 하였을 때 예루살렘의 모든 이들이 그 처참함을 보게 되고 결국 지옥에 갔습니다. 그 직분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직분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은 중심의 정성을 모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오로지 주님만을 위하여 더 잘 섬기자는 목적으로 내 생활이 그 소원에 끌려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건강과 물질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고린도교회는 사도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와 더불어 세웠습니다. 이후에 고린도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이 사도바울로 다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고린도교회가 목자가 필요하게 되자 베드로도 갔었고, 아볼로도 갔었으나, 그 교회 교인들의 수준이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영적 지도자를 구분해 가면서 말씀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고린도교회 사람들이 영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단한 번도 자신들의 주장이나 이론을 내세워 그들을 가르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을 가르치는 영적지도자들에 대하여 말을 만들어 험담하고 패당을 짓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 패당 짓는 것을 없애주기 위해 사도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3~4절)"고 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회개해서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내가 죄 지은 것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은 그곳에는 바울을 나쁘다고 말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즉,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영적인 은혜 분위기에 혼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마귀적 역사인 것입니다. 지도자를 자주 판단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지도자를 통해서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블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최고학부를 마치고 그 시대에 세계가 존경하는 석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를 통하여 진리를 깨달아 성령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사도바울의 제자로 영적지도자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6절에서는 이런 아블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패당을 일삼고 또 그 패당의 세력 확장을 위하여 모략중상을 하면서도, 자신은 은혜 받고 구원 얻은 성도라고 떠벌리니까 너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임을 알고,

네게 주신 성령을 받았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느냐고 7절에서 꾸짖고 있습니다. 패당을 짓는 것은 왕초가 되고 싶거나 그 왕초 그늘에서 행세하고 대접받고 싶어서 일 것입니다.

4. 고린도교회의 입지적 여건은 동양과 서양의 교차지점으로 무역이 가장 성행하는 곳 이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장사꾼들로 돈이 많아 사는 생활 속의 궁핍함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돈으로 교회 안에서도 행세하며, 패당을 일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걱정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고 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 노릇 하였도다"는 말씀은 목자는 제쳐놓고 교회를 자기 맘대로, 생각대로, 욕심대로, 험기대로 쥐고 흔들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이것은 순교를 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쓰여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진실로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원한다면 순교적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서 왕 노릇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너희가 진정한 자격을 갖추어 가기를 소원한다는 말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28절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군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사십에 하나 감한 때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

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 주야를 깊은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처 형제 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기 못하고 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사도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죽음에 처해가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선교를 해 오는 이유는 바울과 같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함 때문이요, 순교적 사명의지 때문에 죽기를 작정하고 섬김의 재물되자고 애써 온 것임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맡긴 일에 순교적 신앙을 다짐하며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섬김의 재물이 될 수만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천 년 왕국에서 왕노릇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목양시간에 신앙노선이 일치해야 합니다.

과거 어떤 교회에서 신앙지도를 받았던 간에 다시 이교회로 보내셨다면 이교회에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의 신앙노선과 일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체질신앙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즉, 같은 성령으로 하나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은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 교회적 사명의지에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일입니다. 이렇듯 선교하는 일에 합심전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본소리방송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기독교샵
www.Kidokshop.com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교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워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들 돕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elcollisioncenter@gmail.com

30년간 사고당당히 만족하시면 평생당당히 알려드립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업무의 정성이 한 가득... 미리 주문해 주세요!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강준민 칼럼

사랑 때문에 내려오신 성탄의 예수님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왜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정상을 정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마 4:5). 또한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마 4:8). 그리고 만일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곳을, 세상 영광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생애는 계속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내려오셨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

오셨습니다. 비천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늘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사색이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능동태입니다.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셨습니다. 높은 보좌를 버리고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거대한 에너지입니다. 사랑은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움직입니다. 사랑은 큰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사랑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먼저 찾아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요일 4:19).

둘째, 예수님은 용서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마 1:21). 인간의 비극은 죄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죄는 인간의 행복을 파괴하는 원수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임했습니다. 죄 때문에 심판과 저주와 정죄가 임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람과 사람사이에도 벽을 쌓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도구라고 증거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레 17:11).

피 흘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히 9:22).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죄는 오직 피로만이 용

서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양과 염소와 소의 피로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죄를 덮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곧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의 피는 정말 귀중한 피입니다. 우리 죄를 능히 용서하고, 우리 죄를 도말할 수 있는 피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찬양했습니다. “너희가 ... 대속함을 받은 것은 ...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벧전 1:18-19).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용서를 받았습니.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히 10:19).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자신의 선행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양과 도덕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겸손한 성품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성탄의 주님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입니다(마 11:29). 왜 예수님은 우리가 낮은 곳에 임하길 원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겸손하길 원하실까요? 낮은 곳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낮은 곳에 평강이 깃듭니다. 높은 정상은 위험합니다. 높은 정상은 산소가 희박합니다.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낮은

곳은 안전합니다. 낮은 곳에서는 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 16:18).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약 4:6). 교만한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따라다닙니다.

넷째,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눅 24:51).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요 3:13).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외에는 하늘의 일을 진정으로 아는 분이 없습니다. 또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3)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하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은 우리에게 복된 성탄입니다. 성탄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겸손을 배웁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결국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복된 성탄이 되시길 바랍니다.

송재호 칼럼

왕으로 오신 예수님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아담이 지은 죄 즉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죄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참혹하게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목숨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가운데 자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가 “경배”를 드린 장면과 예

수님이 이 땅에 자기 예수로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 사건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장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자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한 동방박사들의 말이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헤롯은 이 말에 당황하고 분노하여 베들레헴에 사는 두 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끔찍한 살해가 일어나기 전에 애굽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에서 자신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왕권 회복과 왕으로서

통치하시기 위함이었습니. 즉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의 통치자는 사탄이었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사탄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 이전부터 이미 이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이에 대하여 창세기 3장에서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창 3:15)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하실 일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십자가위에서 이 말씀이 모두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머리가 깨지면서 마귀가 가지고 있던 왕권도 함께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2장 14-1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

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그렇다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어떻게 통치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왕권을 행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가 이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통치를 바르게 받을 때 다음과 같은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 5:22-23).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왕권에 핵심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 우리는 죽음에서 종노릇하던 것에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왕권이 우리 모두의 삶에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봅니다.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TH) • MYP(6TH~10TH) • DP(11TH~12TH)

“아! 이래서~ 믿을 수 있구나!”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진유철 칼럼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성탄절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경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는 첫 사람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인 카인과 아벨의 예배로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 예배하는 혈통과 그렇지 않은 혈통이 갈라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과 명분도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예배의 율법을 받고 예배의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레위기 전체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 흥하였고 욕심과 두려움으로 우상을 숭배하면 망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절 이야기에 예배는 예외가 없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별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찾아와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물을 바치며 경배하였습니다. 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부름을 받고 아기 예수를 찾아와 예배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첫 번째의 사명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인간됨의 참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명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이나 외모나 학벌이나 조건 등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 어려

운 상황과 나쁜 조건 속에서도 예배에 성공하는 나라들은 다 복을 받았고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오천년이 넘는 긴 역사 동안 가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에 성공하면서 놀라운 부흥과 기적을 이루어 OECD 선진국 반열에 이르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실패, 개인 위기의 핵심은 예배의 위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떠나면 인간은 물을 떠난 고기처럼 방황하는 존재가 됩니다. 예배로 복을 받았는데, 그 부와 편리함을 위해 예배를 떠나면 허무와 무의미에 빠져 타락하게 됩니다.

최근 한국에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과 부유층 자녀들 사이에 마약이 급증하고 있고, 미국에는 가장 치명적인 마약 팬타닐의 율 한해 압수된 양이 3억 인구 전체를 사망케 할 정도라고 합니다. 다음세대를 살리

는 자녀 교육의 첫 순서도 예배의 성공이어야 합니다. 영재 교육을 하고 학교 성적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 예배를 놓치면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니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예배에 성공하면 먼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 다음 Soul, 감정이 살아나고 그러면 몸도 살아납니다. Soul, 감정이 없으면 세상이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더 큰 자극을 찾다가 결국 죄로 가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의 새바람이 불면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살아나서 헌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을 보게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탄 짓을 하지 않고 인생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먼저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박동식 칼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



박 동 식 교수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조직신학

드라마 <수리남>이 넷플릭스에 방영되었다. 마지막 6화에서 마약 사범 가짜 목사가 궁지에 몰려 죽을 상황에 이르자 총을 겨누는 이들에게 대답하게 몇 번이나 이렇게 말한다. "Don't shoot", "I am pastor." 자신이 목사이니, 나쁜 짓을 하지 않았으며, 그러니 자신을 쏘지 말라는 의미다.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적나라한 우리 인간의 마지막 밑바닥을 보는 듯했다.

이 드라마는 수리남에서 마약왕이 된 한국인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지만, 목사 이야기는 만들어 낸 이야기라 한다. 그런데 요즘 이런 설정이 잦다. 이런 가짜 설정에 기독교인들은 불편함을 느끼지만, 대중들은 그런 모습이 익숙하다는 반응이다. 이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것이 어쩌면 지금의 기독교가 대중에게 비치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 씁쓸하다. 우리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이런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바꿀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독교에 대한 평가가 밑바닥인 시대에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기독교

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시대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맞서 싸워야 하는가? 아니면 포기해야 하나. 아니다. 그럼에도 겸손히 진실하게 전해야 할 것이다.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주소가 필요하다. 식사하기 위해서는 가고자 하는 식당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지 그 옆집 미장원 주소로 가서 밥을 달라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다. 하나님 나라의 주소가 있다. 그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 주소는 바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 정확한 주소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해야 한다. 다른 주소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주소 말이다.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아들 요한을 얻을 것인데, 그가 큰 자가 되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 한다. 또한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으로 만들 것이라 한다(눅 1:15-17).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창조주, 구세주, 성화자로 고백한다면, 세상 그 누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한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전도 아닌가.

복음 전도에 힘을 내자. 하나님이 살아계심

과 기독교의 복음이 틀리지 않았음과 교회가 반이성적인 인간들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님을 세상에 알리자.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려면,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일이지 않은가. 그것을 진리로 알고 한 평생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니며, 존재한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주와 역사와 존재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살 때 진정으로 살고 존재하는 것일 거다.

그러기에 돌아오게 하자. 믿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자. 이 일에 반대할 이는 없을 것이다. 다만 방법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 방법은 서로 토론과 대화로 조정할 수 있다. 목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누구도 이 사명에서 예외일 수 없다. 신학도 마찬가지다. 신학이 영혼을 살리는데 실제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현학적 사변적 추상적 논쟁만 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학문적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날이 다가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유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좋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 성지로 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여쭙는다. 우리의 아들들답게 '저들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불이 저들을 멸하게 할까요?' 한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해서 불이 내려와 태워버리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주님은 오히려 야고보, 요한을 꾸짖으신다. 그리고는 다른 마을로 가신다(눅 9:5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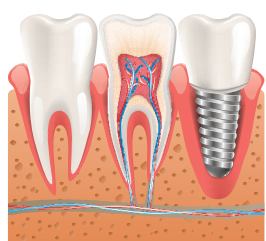
믿지 않는 이들을 그것도 거부하는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그들에게 보복할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이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저 부지런히 전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사로잡아간 성읍의 평안을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렘 29:7). 자신을 사로잡아간 곳의 평안을 구한다는 것은 복음을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 저주를 퍼붓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어느 방법이 복음을 전하는데 더 급진적인가.

세상이 기독교를 조롱한다고 우리도 같이 조롱하지는 말자. 세상의 평안을 기도하며 묵묵히 복음을 전하자. 내가 믿는 것이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자.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변하여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겠는가. 그런 날을 소망해 본다.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 희 원장

고려대학교 임상 치의학 대학원 석사
Korea Tweed Orthodontic 한국 교정 연구회 수료
Osstem Implant Master Course 수료
American Dental Association 회원
American Academy of Implant Dentistry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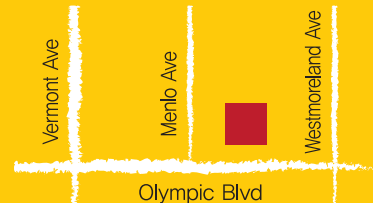


치과의사 이동희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세계는 참 좁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정말 넓다



20세기, 세계, 기독교
이재근
복있는사람 | 460쪽

그들은 어떻게 세계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기독교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 마구간에서 시작한 기독교가 전 세계를 구원하는 종교가 되었다. 하나님이자 그분의 아들인 예수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다. 예수가 중심이 되는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40여 명의 다양한 저자를 통해 기록되어 우리의 손에 들려게 되었다.

기독교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중동 열사의 땅에서 시작된 기독교는 거의 전 세계에 퍼져 있다. 천하 곳곳에 복음이 전해져야 종말이 온다고 하였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계 복음화를 위한 운동은 예수님 시대부터 있었다.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출발하였다고도 볼 수 있겠다.

우리는 영국의 학생운동과 미국의 부흥운동, 그리고 그 은혜의 물결이 인도와 아시아를 거쳐 우리나라에까지 왔다는 근대교회를 쉽게 떠올린다. 그러나 세계교회의 운동은 그 시점과 원천이 예수님의 사역과 방향 목적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주의를 공부하다 보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위험이 있다. 필자 또한 신대원 시절과 그 후에도 그 때의 신학과 책과 말씀이 최고인 줄 알고 집중했던 시절이 있었다.

물론 지금도 종교개혁자들과 후예들의 설교와 신학을 좋아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

하는 거룩함과 열정을 여전히 사모한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신학이라고 고정관념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세계 곳곳에 남겨주신 기독교의 유산을 잃어버리고 무시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나의 신학과 공부에 가장 큰 전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지점은 현재 등산 친구이기도 한 이재근 교수님과 그의 만남이고, 그의 책 <복음주의 지형도>이다. 서헌교회를 섬길 때 실제 이 책을 교회에서 성장반 주 교재로 쓰며 스테디를 했고, 마지막 시간에는 교수님을 초청하여 직접 강의도 들었다.

그 때 어느 권사님은 감동을 받으시며 눈물을 글썽이셨고 막힌 것이 뚫린 것 같다고 나에게 피드백도 해주셨다. 역사 강의를 들으며 은혜와 눈물을 흘리시더니, 역시 역사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게 해주고 교수님 또한 탁월하시다는 생각을 했다.

복음주의 지형도를 보며 남반구 기독교를 향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에 있는 기독교, 오순절에 속한 교회들은 잘못된 것일까? 동방과 중동과 제3세계에 있는 기독교는 변종들인가?

그곳에 있는 교회들은 토착화와 상황화가 과도하고 심각하게 이루어져 진리를 영망으로 만든 죄를 지었는가? 그곳에서 교회를 책임지고 이끄는 리더들은 진리를 왜곡시켰는가?

오히려 교회를 타락시키고 진리를 훼손한 교회와 지도자들은 우리나라에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교단 신학과 다르다는 이유로 세계적인 기독교를 너무 폄하한 것 같다.

유럽과 미국의 기독교가 하향세를 넘어 사향으로 접어들고 있기에, 기독교는 소수로 전락될 위기를 느낀다. 그러나 <복음주의 지형도>에서는 남반구의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개신교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런 흐름과 역사를 통해 기독교는 소수가 아니라 더 확장되었고 더 편안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양 중심의 기독교가 비서양 중심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20세기, 세계, 기독교》는 저자가 첫 책 이후 7년 만에 내놓은 역작이다. 우리나라에 세계기독교를 저술할 수 있는 학자가 소수일 것 같은데, 저자는 대략적인 20세기 세계 기독교 지형도를 그려주었다.

그동안 저자와의 교제를 통해 이 원고를 쓰고 있는데, 매번 고충을 토로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아마 역사와 인물을 읽고 소화하여 객관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엄청난 스트레스였을 것 같다. 그 고뇌와 숙성의 과정을 거쳐 본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 책은 제목처럼 20세기 기독교의 중요한 인물 21명을 소개한다. 복음주의, 비서양, 오순절, 혼종 등 4개 챕터를 통해 20세기 기독교를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들을 통해 어떤 위대한 일들을 펼치셨는지 그 손길과 역사를 살펴보

는 재미가 있다.

저자는 인물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평가도 소개하지만, 그를 통해 일어났던 사건과 그것이 갖는 의미와 역할도 충분히 소개하고 있다. 한 인물과 사건에 양면이 있듯, 저자 또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한다.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은 서구 신학에 의존해 있고 미국 신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도와 아프리카와 제3세계 교회와 신학자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리고 그들의 신학이 여전히 부족하고 위험하고 심지어 잘못되었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다.

그곳에 역사와 정치와 사회와 민족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바르게 볼 수 있을텐데, 우리의 신학과 다르다고 너무 쉽게 적대시한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사회를 이롭게 했던 교회 지도자들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비서양'을 읽으며 제일 유익했다. 필자도 처음 접하는 인물이 있었고,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되고 평가하게 된 인물도 있었다. 첫 챕터 '복음주의'에서는 존 스토트와 로이드 존스, 빌리 그레함 등 익숙한 인물이 나오기에 편하게 읽을 수 있었다. 전에는 로이드 존스를 더 좋아했는데, 신학의 년수와 믿음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스토트가 필자에게 더 가깝게 다가왔다.

특별히 일본의 가가와 토요히코를 보면서, 이렇게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었는지 놀라게 되었다. 비록 민족적 신학으로 치우는 위험이 있었지만, 동양의 신학을 구축하고 일본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에 많은 공감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주님의 사람들을 세우신다. 특별한 나라와 민족을 교회로 삼아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

계시록에는 자기의 언어와 방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고 한다.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열방에 구원의 빛을 비추고 구원의 도를 전하기 위함이지, 잘못된 선민 의식으로 배제와 차별하게 하려는 뜻이 아니었다.

기독교는 고립되어서는 안 되고, 민족주의와 우월의식을 늘 경계해야 한다. 자기 신학이 무조건 진리고 옳으니 타국 신학을 형편 없는 것으로 무시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민족과 문화 속에서 아름답게 꽃피우게 되어 있지, 사대주의로 흘러가는 모양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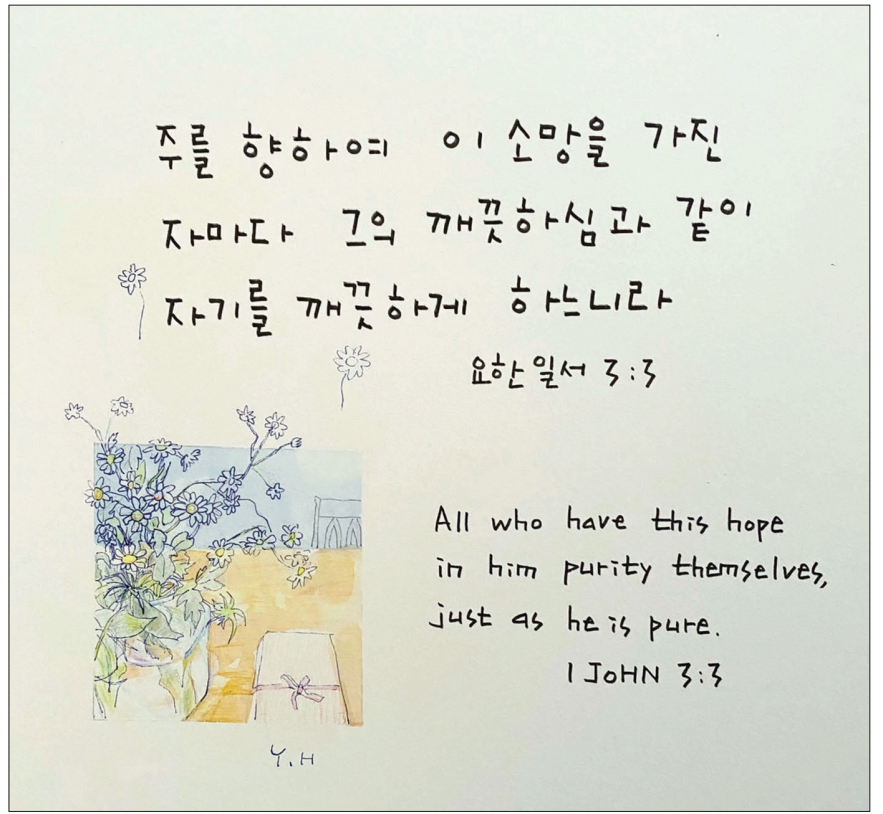
하나님의 뜻은 서양의 신학을 최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동양과 아프리카와 남미 등 각 나라에서 예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 기독교와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 우리는 내가 본 것만 전부로 여기는 우물 안에 개구리로 살아가는 안 될 것이다. 기독교는 이미 세계화가 되었는데 고립된 성도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우리의 세계는 참 좁은데 하나님의 세계는 정말 넓다. 지난 20세기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며,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일을 지혜롭게 이루어가길 생각해 본다.

방명민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자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래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 1-877-580-2424 ☎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뮤지컬 영화 <영웅>(제1화)

안중근, 기독교 신앙과 항일 무장투쟁의 불안정한 공존

과도한 미화 없이 적절하게 묘사한 작품 평가
영화 곳곳에서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소개돼
항일 무장투쟁과 하얼빈 의거 신학 논란 가능
복음 전파한 사도들 침략 앞에 폭력 대응 않아

◆영웅으로서의 안중근: 영화 <안중근>의 훌륭한 역사 고증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와 그 이후의 행적을 다룬 뮤지컬 <영웅>이 영화화되어 지난 21일 개봉했다. 작품 연출은 <해운대>, <국제시장> 등으로 널리 알려진 윤제균 감독이 맡았다.

원래 이 영화는 2019년에 촬영을 마치고 2020년 3월 개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개봉이 무기한 연기되었다가 최근에서야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원작 뮤지컬 <영웅>은 2009년 초연된 후 10년이 넘도록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이 뮤지컬의 대표곡 '누가 죄인인가'는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되어 뮤지컬을 보지 못한 이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명곡이다.

원작 뮤지컬 <영웅>이 대단한 인기와 유명세를 누렸던 만큼, 영화 <영웅>도 개봉 전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원작 뮤지컬의 주연 정성화가 영화의 주연을 맡아 관객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주었다.

개봉 초반인 현재 전 세계적 규모의 블록버스터 <아바타: 물의 길>과 스크린에서 경쟁을 하고 있어 국내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개봉 후 비교적 양호한 흥행 성적을 보이고 있다.

실존 인물의 삶을 그려내는 영화, 드라마, 뮤지컬은 당연히 극적인 연출을 가미해서 상업성을 확보하게 마련이다. 영화 <영웅>도 역사적 사실과 무관한 영화적 연출이 곳곳에 가미되어 있다.

이는 안중근의 사상,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방식을 관객에게 뚜렷하게 각인시키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실제 역사와 영화적 연출을 착각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가져온다.

영화 속 안중근 의사의 행적에 대한 묘사는 역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다. 다만 가상 인물 설화(김교은 분)를 통해 명성왕후의 행적과 성격이 과도하게 미화된 점은 아쉽게 여겨진다.

명성왕후는 한국 기독교계 입장에서 보면 개신교 선교의 길을 열어주고 미국 선교사들을 지원해준 고마운 인물이지만, 우리 민족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심한 사치를 일삼고 무속에 의존하며 외척 민씨 일가의 부정 부패를 조장하여 흥선대원군이 힘겹게 일궈낸 개혁의 성과를 무산시키고 나라가 열강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만든 주역이라 할 수 있다.

명성왕후의 부패한 정치행적에 대해 안중근이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다만 그는 공적으로 한국의 군인으로서 일본 제국주의 세력이 타국의 왕후를 무참히 살해한 일이 심각한 범죄이자 침략 행위라는 사실을 지탄하고 그 부당함을 널리 알리려 했다.

이렇게 뮤지컬과 영화 <영웅>은 명성왕후에 대한 다소 편향적인 묘사만 제외한다면, 비교적 준수한 역사 고증을 선보이고 있다. 실존 인물 안중근을 둘러싼 1900년대 초반 한국의 역사에 대해,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간 한 명의 가톨릭 신앙인이자 독립운동가에 대해 과도한 미화 없이 적절하게 묘사한 작품으로 평가되기에 충분하다.

◆신앙인으로서의 안중근: 신앙과 폭력 사이 안중근의 고뇌

이렇게 별다른 과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뮤지컬과 영화 <영웅> 속에 묘사된 인간 안중근은 범상치 않은 영웅의 품도가 물씬 풍겨난다. 이는 원래 안중근이라는 인물의 삶과 선택 자체가 애국심과 정의로운 신념으로 가득했기 때문일 것이다.



안중근 의사의 항일무장투쟁과 하얼빈 의거, 그리고 법정투쟁을 그린 뮤지컬 영화, <영웅>.

영화 <영웅>에서 인상깊었던 점은 안중근의 모친 조마리아와 안중근의 가톨릭 신앙에 대한 묘사이다. 안중근은 작품 곳곳에서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소개된다. 독립의군에 가담하기 위해 타지로 떠나면서 가족들에게는 로마 교황청에 방문하겠다고 말하는 장면, 그리고 나라와 독립군 동료들을 위해 목숨을 쥐고 기도하는 장면 등이 눈길을 끈다. 실제로 안중근은 10대 후반 세례명(도마)을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된 이후, 죽을 때까지 독실한 신앙을 유지했다. 이러한 사실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는 안중근의 사에 대한 교과서와 미디어의 묘사가 애국심 넘치는 독립운동가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데에만 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래 안중근은 독립군에 가담하기 전까지 가톨릭 신앙 정신에 따라 민중 계몽과 교육을 통해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자 했다. 당시 민족 지도자로 명성이 높았던 안창호 역시 개신교 신앙을 바탕으로 무장투쟁이 아닌 교육과 계몽을 통해 국력을 길러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을사조약이 체결된 직후인 1905년 12월 안중근은 전남 포에서 열린 안창호의 강연에 찾아가 그와 개인적으로 친분을 맺고 그 가르침에 크게 감화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지화 행보에 속도가 붙자 안중근은 군사력에 의존하는 항일 무장투쟁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이러한 결심에 이르기까지 안중근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애초 그에게 교육과 계몽을 통한 독립의 길을 가르쳐준 프랑수아 르가(Le Gac, 괄) 신부는 정교분리 원칙을 강조하며 신앙인의 폭력 사용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물론 안중근이 항일 무장투쟁에 나설 때는 나름 신앙의 영역 안에서 군사력 사용을 정당화할 명분을 갖고 있었다.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를 막론하고 기독교 신학계 전체에서 부당한 침략을 저지하는 방어전에 참가하

는 것은 정당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제의 조선 침탈이 군사력을 앞세운 무장 침공인지, 아니면 국가 수뇌부의 패국 행위에 의한 신민지화였는지 애매한 상황이었기에, 안중근의 항일 무장투쟁과 하얼빈 의거는 신학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안중근이라는 인물의 행적을 평가할 때 우리는 통상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그의 영웅적이고 희생적인 투쟁을 칭송해 왔고, 그래서 그의 기독교적 고뇌를 잘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뮤지컬과 영화 <영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애초 이 영화는 서사의 출발점부터 안중근이 항일 무장투쟁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시점이다. 영화의 시선으로 본다면 그의 무장투쟁과 이토 히로부미 암살은 지극히 정의롭고 정당하다.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항일의병 활동에 인생을 바치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 악랄한 제국주의 침탈자를 처단하며, 죽기 직전까지 일제의 악행을 공적으로 만방에 알리는 법정투쟁에 몰두하는 그의 삶은 '나라를 위한' 순교자의 모습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영웅적 독립투쟁이 성경적 신앙에 근거한 희생과 헌신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기독교의 순교자는,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를 막론하고 결코 폭력을 이용해 신앙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로마 제국의 악랄한 식민지 지배를 견디며 예수의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들의 경우, 단 한 사람도 제국의 침략 앞에 창칼로 대응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아주실 것을 묵묵히 기다리며 오로지 복음 전파와 구제를 통해 예수를 증거하는 데 전념하다가 묵묵하게 순교를 받아들였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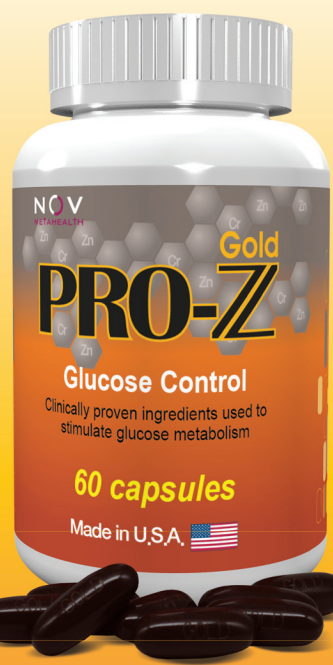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영화 <영웅> 속 하얼빈 의거.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는 안중근 의사.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프로지골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증가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 글루콘산 아연 · 크롬
- 홍화씨유
- 달맞이꽃 증가추출물

혈당조절! 면역기능! 세포분열!

- 1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실의 활력을 찾어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 2 산화아연이 아닙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글루콘산아연(zinc gluconate)이 들어 있습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당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원인은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신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의 핵심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 인슐린 저항성 및 베타 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 기능저하를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합성 물질 '프로지' 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SAL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 + 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KIDOK SH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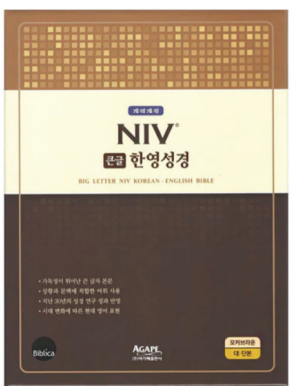


연말 연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세요

이제는 기독교 제품을 매장에서 확인하세요
3055 W 7TH LOS ANGELES, CA90005 (올코샵 내)

최대 6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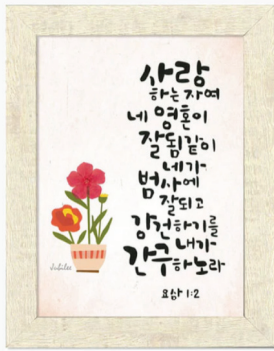


성경
및
기독서적



건강
식품
기프트

화장품
기프트



생활용품
기프트



양말
기프트



과일
기프트

단체선물 주문문의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간편하게-

1:1 카카오톡 채널 실시간 상담!



스캔하고
상담하기!

전화 상담
213-235-6663



Location.
3055 W. 7th Street
Los Angeles CA 90005
(올코샵 안)